

생명조작, 경제논리로만 볼 것인가

서울대 불이회 올해 첫 법담회 현장 | '불자가 보는 생명조작' 주제발표·토론

“올해 첫 모임이네요. 반갑습니다.”
 긴 방학이 끝나고 봄을 맞은 캠퍼스가 싱그러웠다. 3월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서울대 교수불자모임 불이회 회원들도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개학을 맞아 올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 속속 모여드는 10여명의 교수들 표정도 유달리 밝았다.
 서울대 불이회에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법담회(法談會)'라는 이름의 토론회. '법담회'란 교수불자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게 주제를 선정, 불법에 입각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교환하는 자리다.
 1998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자리를 통해 불이회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학을 제외한 기간동안 계속 불심을 돌이켰다. 가끔은 법사님을 초청해서 경전이나 불교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렇다고 법담회가 시종일관 무겁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불자회가 어떻게 꾸러져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은 어느 직장 불자모임과 똑같다.

다양한 전공 통해 불교 바라봐

이날의 발표주제는 '불자가 보는 생명조작'. 우희중수의과대학(면역학)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여서 그런지 회원들의 표정도, 자세도 사뭇 진지하다.
 우 교수가 이날 짚은 것은 △인간·동물 복제 및 이종장기 개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즉 유전자조작 작물의 필요성 △생명과학에 대한 불자로서의 재인식 등이다. 우 교수는 평소 그 누구보다 즐기셨던 문제나 이종장기(종이 다른 생명체에서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키우는 방법)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 왔다.
 “사회가 즐기세요 조차이나 형질전환 동물을 이용한 장기 개발에 너무 경제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이 자연계와 서로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본래 영기적으로 '호름'이 있을 뿐인데, 어느 한 단계에 조작을 가함으로써 생명의 유일성을 침범하는 것이라 봅니다.”
 우 교수의 발표에 소광석(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 연구를 통한 난치병 치료를 꿈꾸고 있는데 이종 장기 등을 인간에게 적용시켰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졌다.

유기적 관계속에서 이해해야

우 교수는 “모든 생명체는 이어져 있지만, 같은 종이냐 할 지라도 '개체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에 의해 거부 당할 확률이 크다”면서 “만약 무균폐지에에서 인간의 장기를 키워 이식한다면 그 장기가 인간의 몸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창(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교수는 전공분야인 GMO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개량 품종이 목적이지만 식물의 유전자 변형은 생각지도 못한 생태계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식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이로 하는 곤충, 동물들의 유전자 변형에도 심각한



3월9일, 올해 첫 법담회를 가진 서울대 교수불자모임 불이회 회원들이 발표자 우희중 교수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게 관여될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유전자 조작된 콩을 자기가 직접 키워 먹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객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박사도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는다.
 “사람이란 뭐든 너무 불필요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만 해석하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존재한다

우 교수도 전 박사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인다.
 “현대 과학이 반성해야 할 점도 그 점입니다. 우리는 '조깅'에 익숙합니다. 사람을 장이나 분자, 원자로 쪼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방향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1+1=2'라는 공식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1+1'이 '0'이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생명체 간 중요성이 제기된다. 임승빈(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입을 연다.
 “철학도 현상학 같은 경우는 인간과 세계와의 진정한 관계 규명을 주장하고 있고, 서양에서도 이제 동양적 사고로 계속 근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불교'의 교리 즉,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존재한다(相依共存)'는 개념이 필요 합니다.”

생명조작 위험 알릴 사회운동 필요

오랜만에 불이회 법담회에 참석한 박세일(국제대학원) 교수는 복잡한 표정이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모두 알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유전자 조작 장기를 이식받으려고 한다

면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명윤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또 이런 행위가 공동체·생태계 파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누가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이상론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생명조작'과 같은 문제는 언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자꾸 경제적 가치와 효용론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생명조작이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사회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불자들이 불교 안에서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언제나 부딪치게 마련이다. 우 교수도, 참석 교수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조율하고 그 안에서 살기란 어렵다는 것을.

임승빈 교수 새 회장 선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교 안에서 살아야 하는 노력, 생활과 학문 그리고 종교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오롯이 불자로서 학문하고 사회 속에 내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윤여창 교수는 “이렇게 법담회에 참여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즐겁다”면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불교를 바라보며 불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불교 사랑' 방법”이라며 웃음 지었다.
 한편 불이회는 이날 새로운 회장단도 선출했다. 소광석 교수에 이어 부회장을 맡고 있던 임승빈 교수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임 교수는 “올해 못한 사업을 진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담회를 비롯해 불교 기념일 행사, 사찰 순례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꾸러 나갈 것”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힘들 때마다 불법에 의지”

고려대 안암병원 김명화 수간호사

서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생아병동.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이 포대기에 싸여 누워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감격과 환희에 차서 눈물을 흘린다. 부모들 못지않게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마음 졸이며 바라보고 불평함은 없는지 세심한 손길을 주는 이가 있다. 신생아병동 수간호사 김명화(49·사진)씨다.
 간호사 생활을 한 지 26년이 넘어서 김씨, 병동에 머무는 눈길마다, 발걸음마다 노련함 그 자체다. 항상 조심하고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다.
 “이제 집에서 설거지에다 빨래까지 한 번 더 보고 확인해요. 남편은 좀 불편해하는 눈치인데, 직업병인가 봐요.”
 김씨는 쾌활하게 웃지만 간호사 일이란 것이 어렵 수 없이 더 꼼꼼해야 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외과·내과 병동을 거쳐 소아과병동, 신생아병동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베테랑이기에.



시기마다 힘든 점은 많았다. 처음 간호사가 됐을 때는 밤 근무가 고봉스러웠는데 이제는 병동을 책임지는 수간호사로 세상의 빛을 처음 본 아기들의 안전을 돌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
 그 때마다 힘이 된 존재가 '불교'다.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됐다고 하는 김씨. 막연하게 우울하고, 또 힘들 때 마다 그를 지탱해 준 불법이 너무 소중하다.
 또 불교는 김씨를 사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소탈한 사람으로 가꿔줬다. 일을 할 때는 엄한 까닭에 후배들이 '호랑이' 선배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곧잘 아이기를 털어놓는 것도 달달하게 웃을 줄 아는 김씨의 마음 때문이다.

김씨가 불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17세 때. 서울 숙명여고 재학 시절, 당시 학교가 조계사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놀러' 다니다 보니 어느새 불자가 돼 있더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발한 여교생은 불교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서원하는 불자로 변모해갔다.
 17세 때 받은 법명 '보현심'은 불자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울이 돼 왔다. 그러다보니 스트레스가 많다고는 해도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김씨는 부처님 법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에 늘 감사하다.
 지금은 고대안암병원 지부장으로 고대병원불자회를 이끌고 있는 김씨. 그렇게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서 삶을 관조하다보니 김씨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다. 노인들을 위한 전문케어를 할 수 있는 간호사, 복지사가 되고 싶은 것이다.
 “저는 반야심경을 가장 좋아해요. 짧은 글 속에 불교의 진수가 담겨 있으니깐요. 그런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회향할 수 있는 불자가 되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장례 지도자 시험준비를 위한 장례 문화 학과 학인 모집

한국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본원은 서기 2005년 서울특별시 장묘문화센터 주최 제1회 장사문화회에 참석하는 등 그동안 한국 장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번 서기 2006년 7월경 실시 예정인 제4회 장례, 지도자 시험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 개 강 일: 2006년 3월 25일
2. 강의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3시간 강의)
3. 교 과 목

	1학기	2학기
1학기	장례지도사자격시험준비반 장례학 개론 상장례학 공중보건학 장사관련법규 I 실습	장사관련법규 II 의학용어 제의례학 해부학 병원미생물학 실습
2학기	장례기획 시제화학 종교별 장례의식 Embalming 시신 Make-up 실습	호스피스 실버메이저먼트 장제용품 및 유류 집단장 연구 장례식장 경영론 실습

4.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3매
 5. 문 의: (02)741-0495~6

해동 장례문화연구소 해동 불교 대학원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스님께서 아롭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 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 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 귀신사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합니다.

종무소 ☎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 (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가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명당옥(玉)만들어 주면 공이 바뀝니다 명당옥(玉)만

◆ 공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차용을 해보십시오.
 ◆ 불기 마귀면 좋은 운으로 변화하여 허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계나 삼계에 시달린다면,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는분, 사주가 인종으로 인분은 명당옥(玉)만 가묘(家廟)를 해보십시오.

불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으로 변화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치방해 보십시오, 불기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허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첫번째이다. 명당옥(玉)만 051)865-9933

전도제 49재와 결번인 처방법 전회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옥(玉)만은 각 시청, 암자, 절학관에만 있습니다.
 육영여리 복영여리 함금영여리 복기막연 복이틀여와 함금운으로 변합니다.